

SK이노베이션, 美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터 잡는다

2~3곳 후보지 놓고 경제성 검토
美 공장, 선 증설 후 수주 전략
한국·유럽·中·美 4각 편대 구성
글로벌 배터리 시장 몸집불리기



SK이노베이션 엔지니어가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내 2~3곳을 후보지로 놓고 경제성 등을 검토하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와 생산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공장 건설은 중국, 유럽과 함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시장임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수주 후 공장 증

설을 해왔지만 이번 미국 공장은 수주보다 먼저 증설하겠다는 '선 증설 후 수주' 전략을 선택했다.

이번 미국 공장 건설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함께 한국, 유럽, 중국, 미국에 4각 편대를 구성하게 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헝가리 코마름에서 첫 번째 해외 생산공장 착공에 돌입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중국

장쑤성 창저우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헝가리 코마름 배터리 공장은 오는 2020년 초부터 유럽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중국 장쑤성 배터리 공장 또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2020년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장쑤성 공장은 약 30만㎡(약 9만평) 부지에 7.5GWh 규모

를 갖췄다. 일반 전기차 연산 25만대 분량이다.

이번 미국 생산공장까지 짓게 되면 올해에만 세 곳의 해외 배터리 공장을 건설, 미국·중국·유럽에 각각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자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셈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도 선두 그룹이 치고 나가면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어렵다"며 "배터리 산업도 '리소스 인텐시브(자원 집중형)'라서 장벽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초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장을 선점하고 자본력이 갖춰지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7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8% 증가한 315.4MWh로 조사됐다. 시장점유율 또한 전년 동기 1.3%에서 2%로 늘었다.

SNE리서치는 니로 PHEV, 기아 쏘울 BEV, 아이오닉 PHEV 판매 증가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성장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C랩 개발한 저시력 장애인용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시각보조 앱 '아시아 혁신' 금상

저시력 장애인 TV시청·독서에 도움

삼성전자가 저시력 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보조 앱 '릴루미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 광고제인 '스파이크스 아시아의 혁신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스파이크스 아시아는 칸 라이언즈 주최사와 영국의 미디어 그룹 헤이마켓이 공동 주최한다. 필름, 모바일, 디자인, 혁신 등 21개 부문으로 나눠 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중국 등 26개 국가에서 4000여명의 광고 캠페인이 출품돼 경연을 벌였다.

스파이크스 아시아의 혁신 부문은 디

지탈 기술의 혁신성과 창의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다. 릴루미노는 누구나 손쉽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 VR을 통해 시각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릴루미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저시력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에서 개발한 릴루미노는 저시력 장애인들이 집에서 TV 시청과 독서를 할 때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릴루미노 앱은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VR에서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S전선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 초고압 케이블 공급

LS전선이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초고압 케이블을 잇따라 공급한다.

LS전선은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외르스테드와 '훈시 프로젝트 2'에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400kV 프리미엄급 케이블 등 약 350km의 초고압 케이블을 오는 2021년까지 공급한다.

훈시 프로젝트는 영국 동부 근해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1, 2가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완공되면 총 2.4GW의 전력을 생산

한다. 약 2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LS전선은 이미 2016년 외르스테드로부터 프로젝트 1을 수주,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해 왔다. 특히 이번 입찰은 LS전선 외 유럽의 주요 케이블 업체들에만 입찰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케이블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속 수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럽은 물론 북미, 아시아 등에서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SKT, ADT캡스 인수 완료 "물리보안에도 4차혁명을"

AI·빅데이터 등 뉴 ICT 기술 도입
보안 솔루션으로 선진국 진출 기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

SK텔레콤이 1일 국내 2위 물리(출동)보안업체 ADT캡스 인수를 완료하며 '인공지능(AI) 보안시대'를 열어갈 것을 표명했다. 지난 5월 인수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SK텔레콤은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캡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채를 포함하면 총 인수 가격은 약 2조9000억원이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지분 55%와 경영권을 확보했다.

SK텔레콤과 맥쿼리는 지난 5월 ADT캡스의 기존 주주인 칼라일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인수 후에도 ADT캡스 사명과 서비스 브랜드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조직과 경영진은 곧 개편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새로운 보안 시장을 만들고 기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보안 시장은 구글·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경쟁터"라며 "영상보안기술·AI·IoT·빅데이터·5G 등 뉴 ICT 기술을 ADT캡스에 도입해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보안 사업 시너지를 위해 SK텔레콤 자회사인 물리보안 사업자 NSOK을 ADT캡스와 합병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으로부터 NSOK 지분 100%를 인수한 뒤 올해 안으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한 박정호



사장은 ADT캡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NEC와 안면·지문 등 생체인식 분야에서, 히타치와는 건물 관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은 보안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ADT캡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보안 수요가 높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새 비즈니스 모델도 도입한다. 건물 보안·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DT캡스는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더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형 매장 보안 관리,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장 관리 등 시설 보안 서비스도 검토중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로보티즈 이동로봇 자율주행 개발 맞손

LG전자가 서비스로봇 솔루션업체인 로보티즈와 공동으로 이동로봇의 핵심부품인 자율주행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LG전자와 로보티즈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로보티즈 사옥에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 LG전자 H&A스마트솔루션사업담당 류혜정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의 자율주행모듈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자율주행모듈은 이동로봇에 사용되는 핵심 구동모듈이다.

LG전자 CTO부서 로봇선행연구소는 지능형 내비게이션 기술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로보티즈는 자율주

행모듈의 구동부, 모터제어기 등 하드웨어 개발을 맡게 된다.

로봇선행연구소는 지난해 6월 지능형 로봇의 선행연구를 위해 CTO부서 산하 컨버전스센터 내에 설립된 조직이다.

1999년에 설립된 로보티즈는 로봇솔루션 및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제이, 센서모듈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듈관리 프로그램, 로봇구동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로봇관제 역할을 하는 동력구동장치인 '엑추에이터'를 독자 개발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엑



LG전자가 선보인 다양한 'LG 클로이' 로봇 제품들. /LG전자

추에이터'는 로봇의 유연성을 높이고 활동반경을 넓혀준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로보티즈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로보티즈의 지분 10.12%를 취득한 바 있다.

/안병도 기자